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집 단위		수험 번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갖는 명예는 각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정(不正)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삼는다. 이와 같은 명예는 지위와 계급을 떠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명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명예는 누구에게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한번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고, 명예의 상실이 가져다주는 쓰디쓴 결과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를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는 외면적인 양심이며, 양심은 내면적인 명예”라는 정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료하고 본질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사실상 명예는 객관적으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견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관적으로는 “우리 가치에 대해 타인이 갖는 견해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에 민감한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중요시하게 된다. 타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확신만큼 그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없다. 이런 호평은 모든 사람이 그를 보호하고 돕는다는 사실을 보증하며, 인생의 여러 재앙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

명예는 손상되기 쉬운 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은 지속되는 반면 획득하기가 어렵다. 명성은 비범한 공적(功績)*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적에는 선행(善行)에 의한 공적과 작품에 의한 공적이 있다. 선행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데 반해 작품은 영속적으로 남는다. 선행에서 남는 것은 선행에 대한 추억뿐이어서, 기록으로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져 마침내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작품은 모든 시대에 걸쳐 살아 있다. 또한 선행의 명성은 선행의 내적 가치만이 아니라 선행이 이루어진 조건과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소수 목격자의 진술에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선행은 일반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작품은 주위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고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만 좌우되며, 그것이 존속하는 한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때로 그것을 판단할 유능하고 공정한 평가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공적(功績): 훌륭한 성과로 평가받은 업적.

제시문 (나)

요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단지 순간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사적인 관심사에만 전념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런데 19세기의 신실한 시민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천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 그들은 행운과 악운을 침착하게 견디며 자신이 맡은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직분의 수행을 통해 자기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직분은 개인에게 부과된 일종의 소명이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공명보다는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들이 이룬 것에 견주어서가 아니라 근면, 절제, 헌신, 봉사와 같은 추상적인 이상에 견주어 판단했다. 전통적인 규범을 통해 규정된 이러한 이상은 개인에게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세기 말엽부터 개인의 성공에 주목하는 경향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 또한 가치의 실현이나 성취의 내용보다는 업적이 가져다주는 외적 보상에 집중되었다. 가치 실현이 가져다주는 명예보다는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치중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들어 성공은 경쟁자들에 대한 승리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목적이 되었다. 성공 관련 실용서들은 타인을 이용하고 압박할 필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성공의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직분의 명예로운 수행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이미지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적의 내용 자체보다는 업적이 누구의 공으로 돌려지는가를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켰다. 성공의 꿈이 성공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자신의 업적을 비교하는 것 말고는 자신의 성취를 측정할 어떠한 기준도 갖지 못한다. 과거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쓸모있다고 인식하게 해 주었던 친구와 이웃의 호평이, 이제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외적 평가와 결부될 때에만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기과시로 변모하면서, 자기과시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되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성공을 부와 명성, 그리고 권력으로 정의하는 반면, 업적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강조될 뿐 무엇을 행했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명예는 자기 직분에 맞는 고귀한 행위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명성은 신문·잡지의 뉴스나 인물란, 연예란 등에서 갈채를 받는 개성의 표출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명성은 새롭지 않으면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는 뉴스와 같이 덧없는 것이다. 성공이 주로 젊음, 매력, 새로움의 함수가 된 시대에 영광은 어느 때보다 더욱 빨리 지나간다. 대중의 주목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걱정한다. 이런 사회에서 성공은 공표 과정을 통해 대중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시문 (다)

● 아래 글은 소설의 한 대목으로, 황만근의 죽음을 애도하여 이웃 민씨가 지은 비문(碑文)*이다. (출제 의도에 따라 소설의 원문을 일부 수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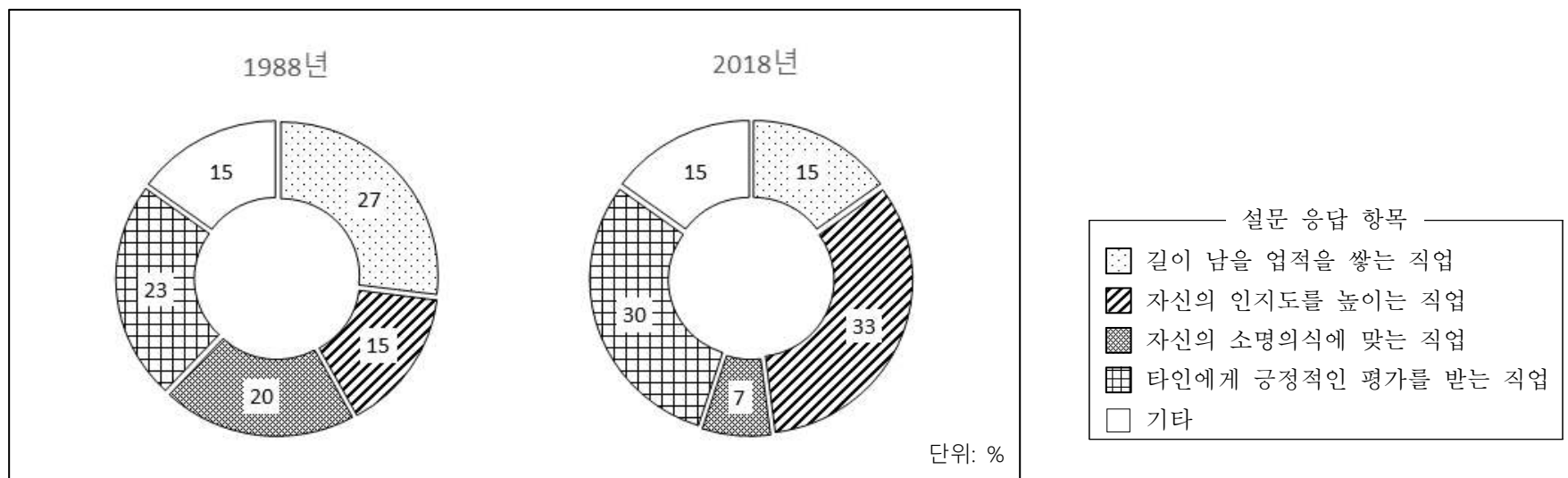
황만근,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황선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는 부를 이루지도 못했고 남들의 대단한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 선생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그를 업신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토끼 귀신을 믿는 그를 두고 모자란 사람이라 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 가운데 선생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아무도 하지 않는 마을의 험한 일을 언제나 도맡았고, 종종 품삯도 없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곤 하였다. 그를 바보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농사를 잘 짓는 으뜸 농사꾼이었고, 경운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박사'였다. 자기 뜻대로 농사를 지으며 백 년을 살겠다던 그는 천상 농민이었다. 농가 부채 해결을 요구하는 농민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여럿이었지만, 농민답게 경운기를 몰고 집회에 나서자던 약속을 지킨 사람은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늦게 도착한 탓에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돌아오던 길에 고장 난 경운기 결을 지키다 차가운 빙속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라.

* 비문(碑文): 죽은 이를 추모하여 비석에 새긴 글.
 ** 신지(神智):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

제시문 (라)

아래 그래프는 1988년과 2018년에 도시A의 시민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시민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아래 표시된 '설문 응답 항목' 가운데 하나만을 골랐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다. 두 글을 비교·분석하고, 각 제시문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황만근의 삶을 논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명예'와 '명성'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그래프에서 1988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